

대학생의 학습활동에 있어 도서관목록의 의미

Meanings of Library Catalog in Learning Activities of Korean College Students

이 은 주(Eun-Ju Lee)*

이 제 환(Jae-Whoan Lee)**

< 목 차 >

- | | |
|----------------------|-------------------------|
| I. 연구를 시작하며 | 2. 변인에 따른 이용행태의 차이 |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III. 학습활동을 위한 도서관목록의 이용 |
| 2. 데이터 수집과 분석 | 1. 목록 이용행태의 보편적 특징 |
| 3. 핵심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 | 2. 변인에 따른 이용행태의 차이 |
| II. 학습활동을 위한 도서관의 이용 | IV. 대학생에게 있어 도서관목록의 의미 |
| 1. 도서관 이용행태의 보편적 특징 | V. 결론에 대신하여 |

초 록

이 연구는 대학생의 다양한 학습활동에 있어서 도서관과 도서관목록의 이용행태를 살펴보고, 이러한 행태 속에서 나타나는 대학도서관 목록의 가치와 의미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또한, 다양한 학습활동의 유형과 인적 변인에 따른 행태의 차이를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이용자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목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대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보다 면밀한 접근을 위해 도서관목록 탐색행태에 대한 관찰법을 함께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현재 대학도서관 목록은 특정 자료의 소장유무 확인과 서가위치 파악과 같은 최소한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었으며, 도서관목록이 대학생의 학습활동을 위한 포괄적인 탐색도구로 기능하려면 대학생들의 정보행태에 기반한 전반적인 품질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키워드: 대학도서관, 도서관 이용행태, 도서관목록 이용행태, 도서관목록 검색행태, 학습활동 유형, 대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values and meanings of university libraries and library catalog in the learning activities of Korean college students. Discussed in details are unique features in their library use behavior and catalog search behavior, and critical factors influencing their behavioral characteristics. A qualitative approach was employed for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Intensiv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30 students, also utilized was tight and close observation of their library search behavior. The result of this study is on identifying the underlying reasons why Korean students use their libraries and catalogs in a passive and limited manner.

Keywords: Academic libraries, Library use behavior, Library search behavior, Catalog search behavior, Learning activities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ejlee@pusan.ac.kr) (제1저자)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wleeh@pusan.ac.kr) (교신저자)

• 접수일: 2012년 8월 28일 • 초심사일: 2012년 9월 13일 • 최종심사일: 2012년 9월 21일

I. 연구를 시작하며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이 연구에 앞서 우리는 대학생의 학습활동에 있어서 도서관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학생의 다양한 정보행태에 대해 살펴보고 그 속에서 학습정보원으로 도서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¹⁾. 우리의 선행 연구가 도서관 이용률이 높은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학습활동을 위한 대학생의 인터넷 의존도는 거의 절대적”이라는 기존 연구들의 주장과는 달리, 대학도서관 또한 대학생의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으로서 나름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습활동의 유형에 따라 대학생의 정보요구는 물론 정보추구 과정에 뚜렷한 차이가 있으며, 전공이나 학년과 같은 인적 변인에 따라서도 정보행태의 차이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조사과정을 통해 우리는 대학도서관이 대학생의 학습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돕기 위한 정보시스템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학습활동의 유형은 물론이고 대학생의 인적 변인을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맞춤형 서비스의 개발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이번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도서관이용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행태적 특징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특히 학습활동을 위해 도서관을 방문하고, 소장자료를 탐색하고, 최종적으로 원하는 자료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보이는 탐색행태의 특징을 학습활동의 유형과 인적 변인에 따라 세부적으로 밝혀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 논의의 핵심은 도서관이 제공하는 핵심 탐색도구인 목록에 주어질 것이다. 이는 우리의 선행 연구에서 밝혀내었듯이, 대학도서관 소장자료에 대한 탐색도구로서 도서관목록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²⁾. 그 결과, 대학도서관이 학생들을 위한 학습정보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고, 특히 학생들의 도서관자료 이용을 활성화하려면 도서관목록을 명실상부한 탐색도구로 개선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학습활동에 있어 도서관목록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이용자의 관점’에서 분석해보고, 현재의 도서관목록을 ‘이용자 친화적’ 탐색도구로 거듭나게 하려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이용자의 관점’에서 도서관목록의 품질을 평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왔다. 대학도서관 목록도 예외는 아니어서 대학생 구성원의 정보요구와 탐색행태 등에 기초하여 도서관목록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심심찮게 이어져 왔다. 그러한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우리의

1) 이은주, 이제환, “대학생의 학습활동에 있어 도서관의 의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3권, 제3호(2011. 9), pp.105-126.

2) 선행연구(이은주, 이제환, 상계논문, p.113)의 분석에 따르면, 도서관자료의 탐색을 위한 1차적 탐색도구로서 도서관목록의 비중은 약 80%에 달할 정도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목록은 많이 개선되어 왔지만 여전히 도서관자료에 대한 포괄적 탐색도구로서 인지되고 기능하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 까닭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원인의 하나가 기존 연구가 갖는 접근법의 한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기존 연구의 대부분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임에는 분명하지만 ‘이용자의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 연구’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참조하면서 이 연구는 철저히 도서관과 도서관목록의 주요 이용자인 대학생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풀어갈 것이다. 대학생이 일상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학습활동에 근거하여 도서관과 도서관목록의 이용행태에 주목할 것이며, 특히, 도서관목록의 이용 과정에서 다양한 변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증하고자 한다. 그러한 논의의 끝자락에서 대학생의 일상적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으로서 도서관과 목록이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찾아내고자 한다.

2. 데이터 수집과 분석

앞선 연구에서 우리는 287명의 P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활동을 위한 정보행태를 분석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대학생의 정보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대출량, 전공, 학년, 학점을 설정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가 설정한 네 가지 주요 변인 중에서 학습수행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학점을 제외하고 대출량, 전공, 그리고 학년에 따른 정보행태의 차이가 실제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학점 요소는 배제하고 대출량, 전공, 그리고 학년만을 의도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 연구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인 학습활동의 유형이 도서관과 목록의 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조사대상의 선정에 있어서도 그들이 현재 ‘가장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 학술활동의 유형³⁾’에 따른 의도적 표집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입각하여 P대학교도서관 이용자들 중에서 30명을 선정하여 연구문제를 풀어가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표집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대출량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의도적으로 표집하였다. 가령, P대학교의 도서관 이용자 중 첫 번째 집단(가칭 “일반집단”)은 도서관 이용자 1인당 평균 대출권수(2011년 7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인 4.5권에 근접해 있는(즉, 평균 대출권수가 4권 내지 5권인) 이용자들을 표집하였으며, 두 번째 집단(가칭 “상위집단”)은 대출량 상위 3%에 속하는 이용자들을 표집하였다. 이에 더해 전공은 인문, 사회/상경, 자연, 이공계열로 나누어 표집하였으며, 학년은 이 연구가 이용자들의 경험과 행태를 기반으로 한 연구이기에 1학년을 제외한 2, 3, 4학년을 표집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3) 총 3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서관을 처음 방문할 때 주력했던 학습활동, 도서관 이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학습활동, 현재 가장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 학습활동 등, 총 세 가지의 상황에 따른 도서관 이용경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나, 그 중에서 ‘현재 가장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 학습활동’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3권 제3호)

과정을 거쳐 선정된 조사참여자들의 주요 변인에 따른 특징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인터뷰 참여자의 구성과 배경

	학습활동의 유형						대출량			학년				전공					
	수업 내용	과제 수행	교양 습득	어학 학습	자격증 취득	취업 준비	소계	상위	일반	소계	2학년	3학년	4학년	소계	인문	사회/ 상경	자연	이공	소계
빈도 (명)	11	13	14	12	5	7	62	20	10	30	7	8	15	30	7	10	5	8	30
비율 (%)	17.8	21.0	22.6	19.3	8.0	11.3	100.0	66.7	33.3	100.0	23.3	26.7	50.0	100.0	23.3	33.3	16.7	26.7	100.0

이들 30명을 대상으로 먼저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는데, 면담은 2012년 3월 27일부터 6월 8일까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1시간 30분 정도 실시하였다. 그러나 면담을 통해 얻는 데이터는 피면담자의 행태적 특징을 온전히 파악하는데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즉, 면담에 응하는 사람이 자신의 기억에 대한 조작이 가능하고, 특히 최근에 겪은 단기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개별 면담을 통해 파악한 다양한 사례를 참조하여 상황별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 도서관목록을 검색하게 하거나 서가를 탐색하도록 한 후 전체 과정을 밀착하여 관찰하는 방법을 병행하였다. 한편, 면담에서 얻은 데이터는 녹취한 후 문서화 하였으며, 총 500페이지에 이르는 문서를 RTF포맷으로 변환하고 질적 자료 분석 도구인 QSR NVivo 10을 사용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3. 핵심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

가. 도서관의 이용행태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언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며, 도서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행태적 특징을 보이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그들이 처음 도서관을 방문하게 된 계기에서부터 자신의 정보요구에 적합한 자료를 입수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음 여섯 개의 요소를 설정하여 도서관 이용행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고자 하였다: ①도서관의 방문목적, ②방문 시의 만족도, ③원하는 자료의 탐색방법, ④선택한 탐색방법의 유용성에 대한 평가, ⑤자료탐색에 사용하는 시간, ⑥탐색결과에 대한 적합성 판단 기준.

나. 목록의 이용행태

동일한 맥락에서 도서관목록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행태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 열 두 개의 요소를 설정하였다: ①목록을 이용하는 핵심 목적, ②목록에 대한 접근성, ③목록검색의

용이성, ④목록이 제공하는 정보의 양, ⑤목록이 제공하는 정보의 질, ⑥목록 검색방법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법, ⑦목록이 제공하는 검색기능의 활용도, ⑧검색 시 사용하는 검색어의 유형. 이에 더해 P대학도서관 목록을 사례로 하여 ⑨검색결과에 대한 인지도, ⑩검색결과 활용도, ⑪검색된 서지레코드에서 주목하는 항목, ⑫검색된 서지레코드의 '부가 항목'에 대한 인지도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다. 학습활동의 유형(以下 학습유형)

앞선 연구에서 우리는 대학생의 학습활동을 “수업뿐만 아니라 교양이나 취업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로 규정한 바 있다⁴⁾. 이러한 개념 정의에 따라 우리는 여섯 가지 학습유형을 설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 ①수업내용의 숙지, ②수업과제의 수행, ③교양지식의 습득, ④어학능력의 배양, ⑤자격증의 취득, ⑥취업시험의 준비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섯 가지 학습유형에 따라 도서관과 도서관 목록의 이용행태에서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II. 학습활동을 위한 도서관의 이용

1. 도서관 이용행태의 보편적 특징

이 장에서는 이번 조사에 참여한 30명의 P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이 학습활동을 위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드러내 보이는 보편적 특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논의는 앞서 제시한 ‘도서관 이용행태’를 대표하는 여섯 개 변인에 있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을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도서관을 처음 방문하였을 때 ‘어떠한 목적’이었는지(즉, 방문목적)에 대해 탐문한 결과, 조사 참여자들의 반응은 크게 둘로 갈라졌다. 가장 많은 답변은 “특정 도서의 대출이나 열람을 위한 방문”으로 나타났지만(65%), “도서관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나 호기심에서”라는 답변(25%)도 적지 않았다. 또한 몇몇은 “만남의 장소를 물색하다가” 혹은 “공부를 위한 공간을 찾다가” 우연히 도서관을 방문하게 되었다는 아주 ‘솔직한’ 답변을 늘어놓기도 하였다. 이처럼 P대학교의 학생들이 P대학도서관을 처음 찾게 된 데는 ‘도서관 소장자료의 이용’이라는 현실적인 목적이 가장 두드러졌

4) 이은주, 이제환(2011)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학습활동의 유형을 첫째, 수업 관련 활동으로 ①수업의 내용을 숙지하는 과정과 ②수업에서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행위, 둘째, 교양 관련 활동으로 ③폭넓은 교양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과 ④각종 어학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행위, 셋째, 취업 관련 활동으로 ⑤취업에 필요한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과 ⑥취업을 위한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행위로 세분하여 접근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들 여섯 개의 학습활동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접근하였다.

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우리의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그들 중 다수가 도서관에서 '대출 혹은 열람'하고자 하는 자료가 '교양지식의 습득'이나 '수업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라는 점이었다.

한편, 방문목적이 어디에 있는 대학도서관을 처음 방문한 대학생들이 도서관에 대해 갖는 첫인상(방문 시의 만족도)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대학생들 모두는 거대한 도서관 시설과 방대한 장서를 처음으로 접하면서 매우 만족스러워 하였다. 물론 그러한 만족의 정도는 방문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막연한 호기심에서, 만남의 장소를 찾다가, 열람실을 사용하기 위해 도서관을 방문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목적으로 방문했던 학생들의 만족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후자 집단의 학생들이 가졌던 초기의 만족은 곧 불만으로 변하였는데, 소장자료는 감탄할 만큼 방대하였지만 그들이 원하는 자료가 없거나 찾는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자료의 청구기호에 대해 무지하고 도서관의 서가배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 무작정 돌아다니다 결국에는 자료찾기를 포기하고 마는 학생들이 많았다. 이러한 불편함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학생들이 토로하고 있었으며, 나름의 원인분석 혹은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있었다. 다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찾는 것이 매우 불편해요. 책 배열이 처음에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배열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책 배열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배열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앞에 '주제와 작가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라는 안내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 봤을 때 뭐가 뭔지 모른다고 할까. 그 안에 질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법학과, 4학년)

도서관에 대해 매우 만족해요. 하지만 한 가지 어려운 것이 있는데, 서가에 갔을 때 찾기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관리하게는 편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 사람이 보고 이 책이 어디에 있구나 등은 알 수가 없거든요. 제가 컴퓨터관련 학과라서 그런지, 이 기호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기 위해 만든 기호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공간집약적, 관리자 중심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보컴퓨터공학부, 4학년)

대학생들의 도서관 이용행태와 관련한 세 번째 탐문은 '자료의 탐색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면담과 관찰을 통해 우리가 파악한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자료 탐색방법은 두 가지였다: 목록검색과 서가브라우저. 목록검색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많았지만(57%), 서가브라우저를 선호하는 학생들 또한 적지 않아 약 43%의 학생들이 목록검색조차 없이(혹은 최소한으로 검색한 뒤) 평소 친숙한 서가로 가서 자신들이 원하는 자료를 브라우저하는 행태를 보였다. 선호하는 탐색방법에 따라 선호의 이유 또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먼저, 목록검색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방대한 자료터미 속에서 원하는 자료(혹은 영역)의 소장유무를 확인해 주고 더불어 자료가 소재하는 서가위치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들에게 서가브라우저는 투자한 시간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확신과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영역이나 자료가 구체적이라면 목록검색을 보다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⁵⁾. 반면에 서가브라우저를 선호하는 학생들은 검색된 목록에 포함된 내용만으로는 해당 자료가 자신이 원하는 자료인지 판단하기 부족하고 부정확하기 때문에, 서가에 가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⁶⁾ 구체적인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일단은 검색하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책만 찾으면 되니까 목록이용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인지 항상 무의식적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정도로 당연하게 이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평소 교수님들께서 이 책을 읽어보고 하라든지, 참고문헌을 주셨을 때를 생각해 보면 도서관목록 검색이 굉장히 편했어요. 만약에 목록이 없었다면 그 많은 책 중에서 그 책을 어떻게 찾을 수 있었어요? (물리학과, 3학년)

이제는 검색할 필요가 없는 것이 주제색션이 있고 어차피 관련 자료를 모아놨으니까 거기 없으면 없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리고 영어 책의 경우 목록상에서는 열람 가능으로만 표시되기 때문에 어차피 가서 없으면 없는 거니까 검색할 필요가 없어요. 또 도서관목록에는 책의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서가에 가서 원하는 그 책에 해당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해요. (경제학과, 4학년)

그렇다면 자신이 선호하는 탐색방법이 원하는 자료를 찾아내는데 얼마나 유용하다고(탐색방법의 유용성) 판단하고 있을까? 네 번째 항목인 유용성에 대한 조사결과는 선호도에 대한 조사결과와는 괴리가 있었다. 즉,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는 서가브라우저보다 목록검색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았지만, 실제 유용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목록검색보다 서가브라우저가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학생들이 다소 많았다(서가 57% vs. 목록 43%). 이러한 조사결과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일까? 즉, 목록은 도서관이 제공하는 소장자료에 대한 유일한 검색도구인데, 많은 학생들이 그러한 검색도구를 이용하는 것보다 직접 서가로 가서 원하는 자료를 브라우저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 것일까?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았다.

-
- 5) Pace(2007)의 연구에서도 현재 OPAC은 이미 알려지거나 잘 알고 있는 자료의 검색은 쉽고 선호하지만 키워드 검색은 검색결과가 너무 많거나 적게 나타나 이용자들이 선호하지 않음을 언급하였다. (Andrew K. Pace, *Users and Uses of Bibliographic Data: The Promise and Paradox of Bibliographic Control*, 2007, <<http://www.lib.ncsu.edu/endeca/presentations/20070308-fbc-pace.ppt>> [cited 2012, 8. 22].
- 6) 한편, 사서에 문의하는 것을 선호하는 학생은 전혀 없었는데 그 이유는 다양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서직에 대해 그릇된 이미지(행정업무를 보는 사람), 전문성에 대한 불신(사서는 정보전문가가 아님), 도서관의 전반적인 분위기(자유롭게 문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님), 개인적인 성향이나 이미지 고려(자신의 질문이 너무 하찮거나 문의한 후 자신의 실수임이 밝혀졌을 때의 민망함) 등이 사서에 문의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고 있었다.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3권 제3호)

전 항상 먼저 도서관목록을 검색하는데, 보통 목차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목차에 적힌 용어와 제가 생각하는 용어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일단 목록에서 제가 찾는 제목과 비슷한 책을 찾아서 직접 서가에 가서 책을 다 열어보고 내용을 검토해요, 그러면 원하는 자료를 얻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서관목록에서 있는지 확인하고, 서가에서 내용을 보고.. (영어영문학과, 3학년)

저는 항상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거나 서점에 가서 확인을 해요, 서점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 좀 번거롭기는 하지만 베스트셀러라든지, 신간안내라든지 그런 것이 잘 되어 있어서 좋아요, 우리 도서관목록을 보면 신간 도서에 대한 안내도 없고, 베스트셀러라든지 그런 표시도 없고.. 그런데 원래 도서관은 그런 거잖아요, 도서관에서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의례히 서점에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에서도 목록을 검색하기 보다는 서가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무역학과, 4학년)

이처럼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변은 의외의 곳에서 찾아낼 수 있었다. 그것은 도서관 소장자료에 포괄적 검색도구로서 목록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치가 처음부터 그다지 크지 않은데서 기인하고 있었다. 즉, 도서관목록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치는 특정 자료의 소장유무를 확인하고 그 자료의 소장 위치를 파악하는 것으로 충분하였다. 따라서 목록이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 그것만으로 목록의 기능은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반면에 서가브라우징은 목록검색에서 얻게 되는 제한적인 정보를 보충해 준다는 점에서 보다 유용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한 행태적 특징은 도서관 자료를 탐색하기 위해 학생들은 어느 정도 시간을 소요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자료탐색에 소요하는 시간'은 평균 30분 내외였다. 그러나 각 학생에 따른 편차는 상대적으로 커서, 10분 이하를 소요하는 응답자가 40%로 가장 많았으며, 30분 이상 소요한다는 응답자도 33%나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도서관에서 원하는 자료를 탐색할 때 보이는 방법적 특징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 가령, 10분 이하를 소요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책을 목록검색을 통해 바로 대출'하는 행태를 보인 반면, 30분 이상 소요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책을 목록에서 1차적으로 검색하고 다시 서가브라우징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선택'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와 같은 행태를 보인 가장 대표적인 이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보통 다른 곳(정보원)에서 검색해서 바로 빌린다고 하면 약 5분 정도? 왜냐하면 검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하는 책이 있다는 것이고, 생각하는 책이 있다면 보통 그 책을 찾아서 바로 빌리기 때문입니다. (전자전기공학과, 4학년)

전 한번 오면 2-3시간은 기본인 것 같아요, 일단 저의 모든 정보검색의 시작은 인터넷이예요, 일단 인터넷에서 찌투리 정보를 굶어모아서 전반적인 내용을 공부할 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도서관에

을 수는 없잖아요, 그 이후 인터넷에서 얻은 팁을 가지고 도서관에서 검색을 하지요, 그 다음에 서가
가서 그 책의 내용이 실제 어떠한지 살펴봐요, 대부분의 시간을 서가에서 보내구요, (중어중문학과, 3학년)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터넷사이트, 서평도구, 추천도서목록 등 다른 정보원을 통해 원하는 책에 대한 정보를 미리 획득한 후, 목록검색을 통해서 책의 소장유무와 서가위치를 파악하고자 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점이다. 즉 목록검색에 앞선 사전탐색과정이 그들 대부분에게 존재하였으며, 그들의 자료탐색과정은 '사전탐색 + 도서관목록검색 + 서가브라우저'이라는 단계를 밟고 있었다. 이처럼 대학생들에게 있어 도서관목록은 학습활동을 위한 핵심 탐색도구로 기능하기 보다는 보조적 탐색도구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듯 탐색도구로서 도서관목록의 기능이 '보조적 도구'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목록검색을 통해 얻은 검색결과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을까? 이를 위해 먼저 '검색결과에 대한 적합성 판단 기준'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어느 정도 적합한지(83%)를 먼저 살펴((83%)를 이동) 자신들이 찾고자 하는 주제에 어느 정도 적합한지를 먼저 살펴보았다. 그러나 검색결과로 제공되는 서지레코드에는 주제 적합성을 판단할 만한 데이터 요소가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기에, 주제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참조하는 데이터 요소는 '목차'와 '표제'였다. 특히 목차를 통해 책의 내용을 미루어 짐작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났으며, 목차가 모든 서지레코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이' 표제를 통해 주제 적합성을 판단한다는 학생들이 많았다. 이에 더해 '자료의 최신성'이나 '저자의 권위' 그리고 '언어와 내용의 가독성' 등을 세밀히 따져본 후 실물 자료의 확인을 위해 서가로 갈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있었다. 이때 자료의 최신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이 '출판연도' 항목을 참조하고 있었으며, '저자의 권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업시간에 자주 인용된 저자, 관련 영역의 책을 많이 쓴 저자, 혹은 주제 영역에서 인지도가 있는 저자 등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언어나 내용이 읽기 쉽게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표제나 목차에 사용된 용어의 수준을 고려하는데, 특히, 한자나 영어가 포함된 자료는 일단 배제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더해 '부가자료의 유용성'이나 '책의 분량' 등도 실물 자료의 선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주제 적합성, 최신성, 저자의 권위, 책의 가독성, 부가자료의 유용성, 분량의 적합성 등을 검증하면서 실물 자료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러한 정보를 도서관목록을 통해 모두 획득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자신의 정보요구에 '가장 적합한' 자료를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있어 목록검색에 이은 서가브라우저는 필수 과정이 되어 있었다. 학생들은 서가브라우저를 통해서 자료의 주제도 재확인하고, 언어나 내용의 가독성, 참고문헌 등의 유용성을 재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었다. 또한 학습욕구가 상대적으로 강한 학생들 사이에서는 자료탐색 및 선택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외부 정보원을 통한 1차 탐색 → 도서관목록 검색을 통해 1차 탐색한 자료의 소장유무 및 서지정보 확인 → 서가브라우저를 통한 해당 자료의 내용적 검증'의 단계적 과정이 보편적 행태로 자리잡고 있었다.

2. 변인에 따른 이용행태의 차이

대학생은 결코 동일한 집단이 아니다. 정보행태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전공이나 학년과 같은 인적 변인은 물론이고 선호하는 학습활동의 유형에 따라서도 정보행태에 있어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여기서는 도서관의 이용행태에 있어 선호하는 학습유형에 더해 대출량, 전공이나 학년과 같은 인적 변인이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도서관서비스는 모든 이용자에게 획일적으로 제공되기 보다는 이용자가 처한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될 때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가. 학습유형에 따른 이용행태의 차이

이번 연구에서 설정한 여섯 가지 학습유형에 따라 도서관의 이용행태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도서관 이용행태를 기술하기 위해 설정한 여섯 개 항목 모두에서 학습유형에 따른 차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도서관 방문 시의 만족도', '자료의 탐색방법'과 '탐색방법의 유용성 평가' 등에서 학습유형에 따른 차이는 두드러졌다. 가령, 수업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혹은 교양지식을 쌓기 위해 도서관을 찾은 학생들의 만족도는 어학관련 학습이나 취업정보를 위해 도서관을 방문한 학생들에 비해 훨씬 높았다. 과제수행을 위해 도서관을 방문 했을 때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이유는 단순하였다. 수업 담당교수가 과제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검색방법을 알려주거나 유용한 책을 추천해 주기 때문에 목록검색이 훨씬 수월하였고, 더불어 서가브라우저를 통해 같은 서가에 모여 있는 관련 자료를 획득하는 것이 쉽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비해 수업내용의 이해를 위해 도서관을 방문한 학생들의 이용 후 만족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가장 큰 이유는 사전정보조차 없는 상태에서 수업내용에 관한 자료를 폭넓게 탐색하는 방법(즉, 주제검색방법)에 무지하다 보니 막상 도서관까지는 찾아왔으나 원하는 자료를 구하는데 심중팔구 실패하기 때문이었다.⁷⁾

학습유형에 따른 또 하나의 차이는 도서관을 찾아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탐색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관찰할 수 있었다. 가령, 과제수행을 위해, 어학학습을 위해, 취업준비를 위해 도서관을

7) 주제검색과 관련한 연구는 유재욱의 실험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여성의 법적 지위향상을 위한 자료탐색"을 실시하여 주제검색을 한 결과, 약 60%의 탐색실패를 보였다. 이 결과가 꽤 오래전에 실시한 연구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여전히 우리 도서관목록에서는 주제검색에 대한 탐색실패 비율이 높고 불만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재욱, "온라인목록 이용자의 주제탐색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2권, 제4호(1998. 12), pp.216-217.)

찾은 학생들 사이에서는 목록검색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컸지만, 수업내용의 이해나 교양 지식의 습득을 위해 도서관을 찾은 학생들 사이에서는 서가브라우저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학습유형에 따른 탐색방법의 선호도 차이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 가령, 과제자료, 어학자료, 취업자료의 경우 인터넷 등의 다른 정보원을 통해 미리 확인한 자료를 목록검색을 통해 서가위치를 파악하고 최종적으로 해당 서가로 가서 관련 자료를 훑어보는 행태가 보편적이었다. 이에 비해, 수업내용의 숙지를 위해 도서관을 찾은 경우는 교수추천 등을 통해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구하지 못한다면 목록검색은 형식적인 시도일 뿐 대부분이 서가브라우저를 통해 관련 자료를 선택하고 내용의 적합성 검증에 위해 서가에 장시간 머무는 행태를 보였다. 이에 더해 특이하게도, 교양습득을 위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복합적인 행태가 함축되어 있었다. 가령, 탐색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다른 정보원에서 읽을거리를 추천받은 후 목록검색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 과제, 어학, 취업자료 탐색과 유사한 행태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는 목록검색에서 가장 단순하게 소장사항만을 확인하고 서가로 가서 그 영역 자료를 전반적으로 훑어보며 서가브라우저를 오랫동안 즐기는 행태를 보여 수업내용의 숙지를 위한 행태와 유사한 행태를 보였다. 구체적인 학습유형에 따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1학년 처음 과제가 유물에 대한 설명을 책에서 찾아오는 과제였거든요. 책 안에서 발췌해서 쓰는 리포트였어요. 그런데 목록검색이 전혀 어렵지 않았던 것이 교수님께서 어떤 책을 보면 좋은지 제목이나 검색방법에 대해서 힌트 같은 것을 주셨어요. (고고학과, 2학년)

사실 수업을 들어도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니니까 공부를 좀 더 하려고 해요. 그런데 과제야 한 두 권의 책이 딱 정해져 있으니 목록에서 검색해서 대출하면 되지만, 수업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야 하니까 검색할 때 그 자체만으로도 막연하다고 해야 하나? 도서관에 와서 무작정 찾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인터넷부터 찾기는 한데, 인터넷에는 전공 관련 자료가 없어서 결국 도서관에 오는 것 같아요. 와서 서가에서 직접 내용을 하나하나 봐요. (사학과, 4학년)

처음 도서관을 이용할때는 교양을 쌓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왔었는데.. 무슨 책이 있고 무슨 책을 읽어야할지 잘 몰랐다고 해야 하나. 대학생인데 이런 저런 책을 읽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생각에 그냥 정하지 않고 와서 책을 찾았던 경우인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서평 적혀있는 것을 봐요. 아니면 인문학 책을 읽고 싶어서 철학과 다니는 친구한테 추천해 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도시공학과, 4학년)

동일한 맥락에서 자신이 선택한 '탐색방법의 유용성 평가'에 있어서도 학습유형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였다. 구체적으로, 과제수행이나 취업준비를 위해서는 목록검색이 서가브라우저보다 상대적

으로 유용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많았지만, 교양지식의 습득이나 수업내용의 숙지를 위해서는 서가브라우징이 보다 유용하다는 응답이 많았다.⁸⁾ 또한 '자료탐색에 사용하는 시간'에 있어서도 학습 유형에 따른 차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 가령, 과제수행이나 수업내용의 이해를 위한 자료의 탐색에는 일정 정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외국어학습이나 취업준비를 위한 자료의 탐색에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마지막으로, '탐색결과에 대한 적합성 판단 기준'에 있어서도 학습 유형에 따른 미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과제수행을 위해서는 '저자의 권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수업내용을 이해하고자 할 때에는 '내용의 가독성'이 중요한 기준이었다. 반면에 교양지식이나 취업정보를 얻고자 할 때에는 자료의 평판이나 최신성 그리고 가독성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 인적 변인에 따른 이용행태의 차이

학습유형에 따른 행태적 차이에 더해 선행연구에서 검토하였던 인적 변인(대출량, 전공, 학년)에 따른 도서관 이용행태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세 가지 변인 중에서 대출량에 따른 차이가 가장 두드러졌으며, 전공과 학년에 따른 차이가 그 뒤를 이었다.⁹⁾

먼저, 도서 대출량¹⁰⁾에 따른 도서관 이용행태를 살펴보면, 도서관 이용행태 분석을 위해 설정한 여섯 개의 변인 중에서 '방문목적', '자료의 탐색방법'과 '탐색방법의 유용성 평가', '자료탐색에 사용하는 시간'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방문목적'에 있어서 대출량이 많은 상위집단에서는 문학류의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두드러진 반면에 일반집단에서는 과제수행을 위한 전공자료를 획득하고자 하는 목적이 부각되었다. 또한 '선호하는 탐색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확연하여, 상위집단이 서가브라우징을 선호하는 반면, 일반집단은 목록검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선호도에 있어서의 차이는 탐색방법의 '유용성 평가'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다. 즉, 상위집단이 서가브라우징의 유용성을 높게 평가한 반면, 일반집단은 목록검색의 유용성을 보다 크게 평가하였다. 이어 '탐색시간'에 있어서도 두 집단의 차이는 뚜렷하여, 상위집단의 탐색시간이 일반집단에 비해 평균적으로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째로, 전공에 따른 차이는 대출량에 따른 차이에 비해 미약하였지만, 몇몇 변인에서의 차이는 이용자 친화형 도서관서비스의 개발과 관련하여

- 8) '사서에 대한 문의'를 선호하는 학생은 학습유형에 관계없이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어학학습, 자격증취득, 취업시험 준비 등에 관해서 사서에 문의해본 학생은 전혀 없었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이 갖는 정보요구의 대부분이 특정 자료의 소장유무나 소장위치에 관한 것이다 보니 대부분의 경우 안내 열람만 가능한 외국어, 자격증, 취업 관련 자료는 서가에 없으면 다른 이용자가 이미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사서에 문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9)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이들 변인의 영향력 검증을 위해 시행했던 교차분석의 결과와 동일하였다. (이은주, 이제환, 전개논문, pp.105-126.)
- 10) 대출량은 도서관의 이용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도서관의 이용행태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변화의 방향성을 보여 줄 수 있는 변인이다. 뿐만 아니라 상위집단과 일반집단을 살펴봄으로서 이용률이 많은 이용자들도 겪을 수밖에 없는 도서관이용의 여러 가지 한계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방문목적'에 있어서 인문계열 학생들에게서 도서관에 대한 호기심이 크게 부각된 반면에 자연계열 학생들에게서는 특정 자료의 획득을 위한 목적이 두드러졌다. 이어, '선호하는 탐색방법'에 있어서 자연계열에서는 목록검색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진 반면, 인문사회계열에서는 서가브라우저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동일 선상에서 '탐색방법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탐색시간'에 있어서는 이공계열이 인문사회계열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목록검색 결과에 대한 '적합성 판단 기준'에 있어서는 이공계열에서는 최신성과 부가자료에 대한 정보를 중시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난 반면, 인문사회계열에서는 언어나 내용의 가독성이 중요한 기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 번째로, 학년에 따른 차이는 '선호하는 탐색방법'과 '적합성 판단 기준'에서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탐색방법에 있어서 저학년으로 갈수록 서가브라우저에 대한 선호도가 큰 반면에 고학년으로 갈수록 목록검색을 선호하는 경향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동시에 고학년으로 갈수록 목록검색의 '유용성'을 인정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비해 서가브라우저에 대한 유용성 평가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어, '탐색결과에 대한 적합성 판단 기준'에 있어서 저학년에서는 언어와 내용의 가독성이, 고학년에서는 자료의 최신성에 더해 저자의 권위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기준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III. 학습활동을 위한 도서관목록의 이용

1. 목록 이용행태의 보편적 특징

II 장에서 논의한대로,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인터넷이나 지인 등을 통한 1차 정보 탐색 → 도서관의 목록검색을 통해 1차 탐색자료의 소장유무 확인 및 서가위치 파악 → 서가브라우저를 통한 1차 탐색자료의 내용 검증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이 원하는 자료를 탐색하는 행태를 보였다. 즉, 도서관운영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도서관목록을 통해 충족해야 할 정보요구의 대부분을 다른 외부정보원과 서가에 대한 브라우저를 통해 충족하고 있었다. 이처럼 대학생들의 자료탐색행태를 통해 확인한 현행 도서관목록의 주요 기능은 외부 도구를 이용해 탐색한 자료의 소장여부 및 소장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 제한되어 있었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도서관목록의 검색에 앞서 사전탐색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자료를 탐색하고 식별하고 선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 그렇다면, 도서관목록이 제공하는 학술정보탐색도구로서의 다양한 기능을 외면하고 어찌하여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포괄적 정보탐색을 위해 다른 정보원을 선호하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지금부터 조금은 미시적 관점에서 대학생들

의 도서관목록 이용행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는 먼저 대학생들이 도서관목록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정보가 정확히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였다. 물론 그들이 '목록을 이용하는 핵심 목적'이 그들이 원하는 자료의 소장유무와 서가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임은 이미 밝힌 바 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조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목록검색에 앞서 '자신이 원하는 자료에 대한 가능한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목록검색의 효과를 최대화하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도서관목록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정보는 한정적이고, 특히 우리 도서관목록이 주제탐색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검색 결과로 얻은 자료의 적합성을 서가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처럼 원하는 주제의 자료에 대한 포괄적인 탐색도구로서의 기능보다는 이미 탐색한 자료의 실물을 획득하기 위해 소장유무와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보조도구로 도서관목록을 이용하고 있었다. 다음은 목록이용 목적에 대한 한 대학생의 이야기이다.

글쎄.. 그냥 도서관은 책 제목을 알고 와서 편리한 것 같아요. 아니 많이 알면 일수록 좋은 것 같아요. 몽땅그러서 검색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할까. 그래서 책의 내용에 대한 검색은 일단 아마존 같은데 들어가서 주제어 검색을 해서 여러 가지 책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책 추천이나 유명한 사람들의 서평 같은 것을 읽으면서 괜찮다 싶으면 도서관에서 탐색을 해요. 그 책이 우리 도서관에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금융공학전공, 3학년)

물론 이러한 결과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도서관목록의 이용목적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기존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더불어 우리 목록이 갖는 이러한 한계는 태생적이어서 혁명적인 조치(가령, 주제 관련 데이터 요소의 보충과 강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단지 여기서는 현 단계 목록의 수준을 이용자들의 관점에서 가감없이 평가해 봄으로써 향후 목록의 품질 개선을 위한 기본 데이터를 얻고자 할 뿐이다. 이를 위해 우리가 알아보고자 설정한 항목은 모두 네 가지로, '목록에 대한 접근성', '목록검색의 용이성', '목록이 제공하는 정보의 양', '목록이 제공하는 정보의 질'에 대한 학생들의 경험적 판단을 탐문하였다. 탐문결과, 현재 도서관내(외)에서 목록에 접근하고자 할 때 느끼는 편의성에 대해 대부분의 학생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목록의 검색 또한 매우 용이하여 별도의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자가 대다수였다. 또한 목록에 기술되어 있는 정보가 자신이 원하는 책인지 판단하는데 적절한 양인지에 대해서도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다. 나아가 목록에 포함된 정보의 질적 유용성에 대한 답변 역시 매우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답변들은 그 내면을 헤집고 들어갈수록 차츰 부정적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들 답변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면담 내용에 일단 주목해 보자.

도움이 안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차피 다른데서 다 찾아서'있다 없다'를 선택하는 정도로 쓰고 있으니깐.. 그 정도로 봤을 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문헌정보학과, 2학년)

불충분하지요, 그래도 없는 거보다는 낫지요, 도움이 되는 부분이 꽤 많은 편이에요.(윤리교육과, 4학년)

전반적으로 유용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목록에서는 대략적인 것만 살피고 직접 가서 책을 보는 편이 라서.. 딱 그 정도의 눈높이에서는 유용한 것 같아요. (국어국문학과, 2학년)

이처럼 현 단계 도서관목록에 대한 학생들의 평을 종합해 보면 주목할만한 특징이 드러난다. 많은 학생들이 “시간을 투자하기만 하면 찾기 쉽다”, “‘일단’ 유용하긴 하다.”, “‘양’은 많다.” 등으로 표현하며, 현재 도서관목록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책의 소장유무를 알려주고 해당 서가위치를 알려 주며, 나아가 어찌되었든 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생각하며 정보의 양적 측면에서도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처럼 목록의 기능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반한 평가라기보다는 목록에 대한 낮은 기대감에서 발로하는 ‘최소한의 긍정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 대학생들의 목록의 기능에 대한 이해와 품질에 대한 기대치가 얼마나 낮은지는 목록을 이용한 그들의 검색행태를 좀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보다 명료해진다.

대학생들의 목록 검색행태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자 설정한 질의는 ‘목록이 제공하는 검색방법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법’, ‘목록이 제공하는 제반 검색기능의 활용 여부’, 그리고 ‘목록검색 시에 사용하는 검색어의 특성’ 등에 대한 것이었다.

먼저, ‘가장 선호하는 검색방법’에 있어서,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 모두는 도서관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서 제공하는 <통합검색>을 가장 선호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단 <통합검색>을 시도한 후 검색결과가 불만족스러울 경우 단지 소수의 학생들만이 <상세검색>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 참고로,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거의 모두 도서관목록의 검색방법이 도서관 홈페이지에서의 <통합검색>에 더해 소장자료만을 대상으로 한 <간략검색>과 <상세검색>으로 구분되어 제공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10%에 불과한 소수의 학생들만이 <상세검색>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이렇듯 <상세검색>을 기피하는 까닭은 <상세검색>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상세검색> 이용 후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즉, <상세검색>을 이용해 본 경험이 없는 학생

11) <통합검색>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검색결과를 참고하면서 ‘결과내검색’을 계속하거나 목록에서 제공하는 패싯내비게이션을 이용하여 소장기관이나 발행연도를 줄여나가는 식으로 검색결과에서 수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자신들이 가진 정보가 적기 때문에 목록에서 최대한 많은 검색결과를 도출한 뒤 줄여나가는 것이 적합한 책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방법이라 여기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결과내검색이 낮은 활용도를 보인 사공복희(2003)의 연구와는 사뭇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이는 검색방식의 차이라기보다는 목록검색을 위한 화면 구성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사공복희 역시 “문제는 화면설계상 재검색에 대한 안내가 화면하단에 위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목록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지만 제작한 목록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 또한 중요함을 보여준다.

들은 <통합검색> (그들의 관점에서 <간략검색>)만으로도 원하는 자료를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 굳이 시간을 들여 방법을 숙지하여 복잡하게 검색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 반면, <상세검색>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목록이 내용적 요소 자체가 충분하지도 치밀하지도 않기 때문에 검색어를 치밀하게 입력하면 오히려 검색결과가 부실하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이 <상세검색>을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들에게 직접 그 이유를 물어보면 다음과 같다.

도서관목록은 많은 능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걸 다 안 써도 검색이 잘되고, 오히려 많은 검색기능을 쓰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조합하면 오히려 검색결과가 없었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지리교육과, 4학년)

검색어를 디테일하게 넣으면 검색결과가 안 나오니까 좀 넓게 넣어요, 그러면 검색결과가 많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검색어를 많이 입력하기보다는 처음에 하나를 넣고 추가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역과 문헌정보 이걸 검색하려면 '무역 and 문헌정보', 혹은 '무역 문헌정보' 이렇게 입력하는 것보다 무역을 검색한 다음에 쪽 보다가 나오는 책 제목을 하나하나 넘겨보다가 못 찾겠다 싶으면 결과내검색으로 문헌정보 이렇게 검색을 해요, 문자열을 수고스럽게 입력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편해요. (무역학과, 4학년)

지금 통합검색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몇 단계로 들어가서 검색할 필요가 없었어요, 별로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해야 할까요? (문헌정보학과, 2학년)

이어 '목록이 제공하는 제반 검색기능의 활용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검색기능 활용도'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인 사용자는 응답자의 15%에 불과하였으며, 대부분이 복잡한 검색기능을 익히는데 부정적이었다. 또한 복잡한 검색기능을 적용할수록 검색결과는 오히려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그릇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 주제검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학생들은 모두 단순한 표제검색을 선호할 뿐, 불리안 기능이나 기타 필드제한 기능 등의 사용을 기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선입견과 기피 행태는 '검색을 위한 용어의 사용'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다. 표제검색을 하면서도 특정성이 높은 검색보다는 보편성이 높은 검색어를 선호하고 있었으며, 특히 3개 이상의 복수의 검색어를 사용하는 학생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일단 인터넷에서 대략의 내용이나 큰 흐름 같은 것을 찾아서 읽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서관에서 검색할 수는 없으니까 검색의 키워드에 대한 팁을 얻기 위해서 인터넷을 보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막상 검색은 세부내용과 무관하게 그냥 큰 덩어리로만 해요. (한문학과, 4학년)

주제어는 보통 한 개를 입력하구요 많으면 두 개? 그 이상은 안 넣어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때 그렇게 많이 넣으면 절대 안 나와요. 사실 타이틀에서 검색되는 건데 타이틀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중어중문학과, 3학년)

이러한 조사결과를 좀 더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P대학도서관의 목록을 이용한 검색실험을 병행하였다. 물론 한 대학의 사례를 조사하여 일반화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목록이용행태에 있어 면밀히 살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간단한 실험을 시도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P대학도서관의 ① 목록검색 화면에서 제공하는 내용 중에 학생들이 정확히 인지하는 내용은 무엇인지(검색결과에 대한 인지도), ② 인지한 내용 중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내용은 무엇인지(검색결과의 활용도), ③ 검색된 서지레코드에서 참조하고자 하는 데이터 요소는 무엇인지(검색된 서지레코드에서 참조하는 데이터 요소), ④ 목록에서 제공하는 추가정보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검색된 서지레코드의 '부가 항목'에 대한 이해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실제 목록검색 화면에서 학생들이 보였던 행태는 매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것이었다.



〈그림 1〉 P대학도서관 목록의 검색 결과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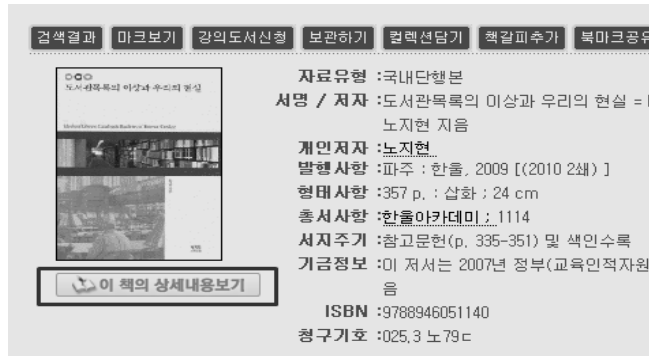
먼저, P대학도서관의 <통합검색> 방법을 선택하여 검색어를 입력하면 <그림 1>과 같이 첫 화면에서 '소장자료 검색결과', 'RISS 학술논문 검색결과', '네이버 전문정보 검색결과' 등이 순서대로 제시된다. 이러한 '검색결과에 대해 학생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면, 먼저, 모든 학생들이 소장자료에 대한 서지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홈페이지를 통해 학술논문의 검색결과를 제공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학생들은 67%, 네이버 전문정보에 대한 검색결과를 제공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학생들은 약 절반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학생들이 도서관목록을

이용하는 목적에 더해 목록검색 화면의 디스플레이 방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였다. P대학도서관의 경우 현재 도서관목록에서 앞서 언급한 세 가지 검색결과를 한 화면에 디스플레이하려면 화면이 길어지고 반드시 스크롤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이 이번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는 도서관목록을 통해서 이미 탐색한 자료의 소장유무를 확인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는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따라서 목록검색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자료의 소장유무를 확인하면 굳이 학술논문, 전문정보의 탐색결과를 보지 않고 바로 서가로 향하는 행태가 짙게 나타났던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P대학교 도서관목록에서는 학술논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목록의 <통합검색>을 통해 학술논문에 접근한다는 학생은 단 1명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이다. 나머지 학생들은 학술논문이 필요할 경우 도서관목록을 통하지 않고 바로 학술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검색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러한 탐색행태에 대한 원인을 탐문해본 결과, 도서관목록에서 학술논문에 대한 검색결과를 보여줄 때는 유료/무료 논문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원하는 논문의 전문(full-text)을 보고자 할 때는 학술데이터베이스에 다시 로그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학술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그러한 행태의 저변에 깔려있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도서관목록의 이용목적이 단순히 도서를 검색하기 위한 것이며, 도서관목록과 학술논문검색시스템은 별개라는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도서관목록과 학술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때 사용하는 검색어 수준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는데, 가령, 도서관목록은 단행본을 검색하기 위한 시스템이라 간주하기에 책의 표제에서 검색될 수 있는 대주제 용어로 접근하는 반면, 학술데이터베이스는 주제나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에 소주제 용어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결과, 도서관목록의 <통합검색>에서 대주제 용어로 검색된 학술논문은 자신들에게 별로 유용하지 않다는 편견 또한 갖고 있었다.

과제할때는 보통 단행본도 보지만 논문을 많이 봐요. 그래서 먼저 도서관에서 검색해보고 RISS에서 재검색을 해요. 중요한 건 도서관목록에서 검색하면 단행본은 어차피 책 제목에서 검색될 것이고, RISS는 초록이나 키워드 등에서 검색되니까 소주제로 검색이 가능하잖아요... 좀 안 맞다고 해야 하나.. (영어 영문학과, 3학년)

이어, 검색된 서지레코드에서 자신이 원하는 자료인지 확인하기 위해 어떠한 '데이터 요소'에 주목하는지에 대해 탐문하였다. 탐문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료의 표제, 저자, 목차에 더해 자료의 대출가능여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데이터 요소보다는 덜 하지만 청구기호, 서가위치, 그리고 출판연도 등에도 커다란 관심을 보였으며, 비록 소수이지만 출판사, 분량, 유형, 유사한 추천컨텐츠, 표지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P대학도서관의 서지레코드 제공화면

더불어, 현재 P대학도서관 목록에서는 다른 인터넷서점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가서비스 항목’에 대해 단지 23%의 학생들만이 인지하고 있었다. 부가항목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이유에 대해 학생들은 도서관목록에서 그러한 내용(즉, 부가항목)을 제공하고 있는 현재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림 2>와 같이 현재 P대학도서관 목록에서는 “이 책의 상세내용보기”라는 조그만 아이콘을 눌러야 새로운 창이 뜨면서 외부데이터로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목록 자체에 대한 기대치는 물론이고 이용행태가 매우 소극적인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있어 ‘유용성이 불확실한 정보’를 위해 또 한 번의 클릭을 감수하기란 결코 쉽지 않아 보였다.

2. 변인에 따른 목록 이용행태의 차이

그렇다면 도서관목록을 이용함에 있어 나타나는 이러한 행태적 특징이 조사에 참여한 모든 대학생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일까? 앞서 도서관 이용행태를 학습유형과 인적 변인에 따라 분석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번에는 이러한 변인이 도서관목록의 이용행태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지 살펴보았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도서관의 이용행태와 동일하게 학습유형과 인적 변인에 따른 의미있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인적 변인에 비해 학습유형에 따른 차이가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 학습유형에 따른 이용행태의 차이

여섯 가지 학습유형에 따라 목록의 이용행태를 분석한 결과, 여러 측면에서 주목할만한 차이가 있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목록의 이용목적’, ‘목록이 제공하는 정보의 양’, ‘목록이 제공하는 정보의 질’, ‘목록이 제공하는 검색기능의 활용도’, ‘검색 시 사용하는 검색어의 유형’ 등에서 나타났다.

특히 여섯 가지 학습유형 중에서 과제수행과 교양습득을 위한 이용행태에서 유사한 면이 많았으며, 어학학습, 자격증취득, 취업준비 등을 위한 이용행태에서 또한 유사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목록의 이용목적'에 있어서는 수업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나 교양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목록을 검색할 때는 원하는 자료의 소장유무를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이 상대적으로 강하였으나, 과제수행이나 취업준비를 위해서는 서가위치를 알고자 하는 목적이 상대적으로 강하였다. '목록이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관련하여서는 어학학습이나 취업준비를 위해 목록을 검색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정보의 양이 적다'는 불만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목록이 제공하는 정보의 질'에 있어서는 수업내용의 이해와 자격증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한편, P대학도서관의 목록을 이용한 검색실험에서도 학습유형에 따른 이용행태의 차이를 감지할 수 있었다. 가령, '검색결과에 대한 인지도'와 '검색결과의 활용도'는 과제수행, 수업내용 숙지, 교양습득의 경우와 같이 보다 전문적인 학습활동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불어 '검색된 서지레코드에서 주목하는 항목'에서 역시 학습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가령, 과제수행이나 수업내용의 이해를 위해서는 서지레코드의 목차를 확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교양지식의 습득을 위해서는 저자를 확인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학습유형에 따른 탐색행태의 차이는 '검색시 사용하는 검색어의 유형'과 '목록이 제공하는 검색기능의 활용도'에서도 나타났는데, 가령, 수업내용의 이해를 위해서는 주제검색의 비율과 다양한 검색기능을 사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습유형별 검색어의 유형에 따라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전 교양관련 자료를 주로 보는데, 제목하고 저자명 정도를 봐요, 주제어 검색은 해본적이 없어요, 몇 번 해봤는데, 효과를 본 적이 없고, 늘 너무 많은 자료리스트가 나와서 거르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는 아예 안해요. (화학교육학과, 3학년)

수업을 듣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테마를 입력하는 편이에요, '국제보험' 이런 식으로, 그런데 완벽하게 세부주제를 입력하는 것은 아니고요, 두 단어 정도 입력하는 것 같아요, '외국 무역' 이렇게 기억나는 단어들 위주로, 그러면 검색된 결과를 보고 그 중 원하는 자료를 선택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검색하는 편인데, 그런데, 보통 교양같은 경우는 이와 다르게 제목 혹은 작가 이름으로 검색을 하거든요. (무역학과, 4학년)

나. 인적 변인에 따른 이용행태의 차이

우리가 활용한 세 가지 변인 중에서 도서관목록의 이용행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대출량이었으며, 이어서 학년과 전공의 순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서관 이용행태에 대한 조사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도서관의 이용에 비해 목록의 이용에 있어서는 전공보다는 학년에 따른 행태적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먼저, 대출량에 따른 집단별 목록의 이용행태는 커다란 차이를 보였는데, 무엇보다도 대출량이 많을수록 목록의 이용빈도가 많았으나 이용빈도가 잦을수록 목록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대출 상위집단으로 갈수록 목록이 제공하는 정보의 양에 비해 그 '유용성'은 매우 낮은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목록이 제공하는 검색기능의 활용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가령, 다양한 검색기능의 활용도에 있어서는 대출 상위집단의 적극성이 단연 돋보였으나(즉, P대학도서관 목록을 이용한 검색실험 결과, **검색결과에 대한 인지도와 검색결과 활용도는 물론이고 검색어의 사용에 있어서도 상위집단에서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검색기능에 대한 만족도는 일반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처럼 목록의 이용빈도가 증가하면 할수록 목록에 수반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증가하지만 전반적인 만족도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출량에 따른 차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학년'에 따른 이용행태의 차이 또한 뚜렷하였는데, 무엇보다도 고학년으로 갈수록 목록의 이용빈도가 증가하면서 목록의 내용(즉,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질)에 대한 불만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목록의 검색기능에 있어서는 고학년으로 간다고 해서 그 인지도나 활용도에 있어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오히려 고학년으로 갈수록 다양한 검색기능에 대해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으면서도 <간략검색>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짙게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누적된 경험에서 오는 부정적 인식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고급 검색기능의 사용이 번거롭기만 할뿐 <간략검색>에 비해 검색결과에 큰 차이가 없다는 인식이 짙게 깔려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공에 따른 이용행태의 차이는 다른 변인에 비해서 두드러지지 않는 않았다. 그러나 P 대학도서관의 목록을 이용한 검색실험에서는 전공 계열에 따른 주목할만한 차이를 관찰할 수 있었는데, 특히, 이공계열의 학생들에게서는 다른 계열의 학생들과 다른 차이를 감지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이공계 학생들은 단편적인 표제를 가지고 목록에 접근하여 소장정보 정도만 확인한 후 목록검색을 완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우리의 추측과는 달리 '**목록이 제공하는 검색기능의 활용도**'에 있어서도 이공계 학생들은 타 전공 학생들에 비해 오히려 소극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그들에게 있어 목록의 의미는 어차피 '자신이 알고 있는 자료의 도서관 소장유무'를 확인하는 단순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이었다. 이공계열 학생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전공서적의 경우 교양서적이거나 다른 영역의 책을 찾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특히 공대의 경우, 책 제목이 책 내용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책이 많아요, 잘 모르지만 다른 영역, 그러니까 인문학이나 사회학은 뭔가 함축적이고 문학적인 제목이 많은 것 같은데, 공대는 상대적으로 명료하지요, 얼마 전에 마을만들기의 개념과 사례,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한 과제를 받았었는데, 책 제목이 『마을만들기』인 책이 있어

서 찾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그러니까 주제와 제목이 일치하는 경우가 대다수지요. (도시공학과, 4학년)

검색은 대개 상위 개념 같은, 예를 들면 프로그래밍언어명이나 큰 과목명이라고 할까 그런 식으로 검색을 해요. 그런데 전공특성상 그런 제목으로 검색해도 충분히 검색이 잘되는 편이에요. 그런데 목차를 열어보면 같은 주제의 책이면 목차가 거의 유사해요. 별로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목록에서는 그 책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 찾아보는 편이에요. (정보컴퓨터공학부, 4학년)

지금까지 논의한 것처럼, 학습유형과 인적 변인에 따라 대학생들의 도서관 및 목록의 이용행태에 는 의미있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무엇보다도 도서관과 도서관목록에 대한 이용경험이 누적될수록 불만이 증가하는 모습에서 현행 도서관시스템과 서비스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특히 대학생의 학습활동을 위한 도서관 활용을 촉진하고 학습정보의 탐색을 위한 핵심 도구로서 목록의 의미를 재정립하려면 대학도서관 운영주체의 의식 전환과 개선 노력이 시급하고 절실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학습유형은 물론이고 전공이나 학년과 같은 인적 변인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의 개발에 더해, 기존 도서관목록의 내용과 검색기능의 다양화,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이용자교육의 시행 등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서비스 전략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한다.

IV. 대학생에게 있어 도서관목록의 의미

이 연구에서 우리는 오래전부터 많은 학자들과 사서들의 다양한 연구와 노력에 기초하여 구축해 온 도서관목록이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용자들로부터 홀대당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하였다. 특히 우리 사회의 주체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는 대학생 집단에서조차 철저히 폄하되고 있는 모습을 목도하였다. 그렇다면 이처럼 이미 알고 있는 자료의 소장유무 정도를 확인하는 보조도구로 전략해 버린 도서관목록을 도서관 소장자료는 물론이고 다양한 정보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로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까? 아마도 그 방법을 제대로 찾으려면 우리는 먼저 이용자들이 도서관목록의 의미를 왜곡하고 그 기능을 축소하여 바라보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 그러한 '왜곡된' 인식과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먼저 고민해야만 할 것이다.

앞서 II 장에서 논의하였듯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도서관을 처음 방문하여 도서관목록을 대했을 때 조금은 낯설고 두려운 느낌을 받았지만 이내 사용법에 익숙해졌으며 이후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들은 왜 그러한 답변을 했던 것일까? 그들과의 면담과 그들의 탐색행태를 관찰하면서 우리는 그들의 그러한 반응이 도서관목록에 대한 그들의 최초 기대와 누적

경험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었다. 즉,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과거 도서관 이용경험에 따라 목록의 의미와 기능을 축소하여 해석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목록검색을 통하지 않고 도서를 찾는 데 익숙해 있기 때문이었다.¹²⁾ 따라서 대학도서관의 거대한 장서터미에서 자신이 원하는 자료의 소장유무를 확인하거나 배열 서가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목록은 대단한 가치를 지닌다는 '경험에 의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이 전제하기에 도서관목록에 대해 그 어떤 기대도 없으며, 목록의 검색기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전개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더해 그들이 최초로 도서관목록의 존재에 대해 인지하게 되는 과정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을 물리적으로 방문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도서관목록의 존재를 검색대(PC)앞에 길게 줄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인지하였으며, 목록의 이용방법에 대한 이해 역시 검색대 앞에 줄 서 있으면서 앞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결눈질을 통해 익히고 있었다. 도서관목록을 도서관홈페이지를 통해 처음 인지한 학생들은 더욱 오해의 골이 깊었다. 목록의 존재와 의미조차 모른 채 인터넷 검색에서 하던대로 <통합검색> 창에서 생각나는 단어를 입력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처럼 목록의 기능과 사용법에 대해 제대로 학습하는 과정도 없이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이나 기존의 검색경험에 의존하여 목록을 검색하는 습관이 생성되고 그것이 '최선'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의 이야기는 그들의 잘못된 인식과 행태를 명료하게 보여준다.

저는 자연대라 실험 관련 보고서 작성시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데, 목록을 검색하면 안 나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일반 책들과 있는 위치가 달라서 PC에서는 검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선배들이 그런 책이 도서관에 있다고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면 저는 졸업할때까지 몰랐을거예요. 검색이 안 되니까. (분자생물학과, 2학년)

도서관에서 책 타이틀을 입력하는데 부분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과제를 하기 위해서 『한국인의 돈』이라는 책을 찾으려고 왔는데, "한국 돈"이라고 입력하니까 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서가를 지나가다 보니까 그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책 타이틀을 모두 입력해요. (영어영문학과, 4학년)

12) 이를 이해하려면, 도서관을 방문하는 주요 목적인 교양습득과 과제수행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초기 행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교양습득을 위해 도서관을 처음 방문하는 학생의 경우 대학생다운 교양을 갖추고 싶다는 막연한 요구가 존재하였다. 이처럼 요구가 구체적이지 않고 문제해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일반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많이 들어본 작품, 유명한 저자의 작품, 쉽게 읽을 수 있는 도서를 선호하며, 그로 인해 소설류 등의 문학작품에 대한 커다란 요구를 갖게 된다. 이 때, 막연한 정보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최초의 목록탐색 경험(즉, 인터넷 등 타정보원에서 사전탐색을 한 뒤 도서관목록에서는 소장유무 등을 확인하는 검색방식)이 이후 도서관목록의 이용을 제한적으로 만들고 제반 탐색기능의 사용에 소극적으로 만드는 계기가 된다. 또한 과제수행을 위해 도서관을 처음 방문할 때는 대부분 저학년이기 때문에 담당교수가 책에 대한 서지정보를 가르쳐주고 리뷰를 쓰게 하거나 실험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읽을거리에 대한 명확한 인지도가 형성된 상태이다. 이러한 경험 또한 도서관 목록이 명확한 읽을거리를 정하였을 때 효용성이 높다는 인식을 갖게 만든다.

이 두 인용문은 검색기능에 무지하거나 자신이 선택한 검색어의 오류로 인해 자료가 검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검색경험에 기초하여 잘못된 검색을 지속하고 있는 사례를 보여준다. 잘못된 경험으로 인해 “별치되어 있는 자료는 검색이 되지 않는다.” 혹은 “도서관에서 검색할 때는 전체 표제를 다 입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된 것이다. 이처럼 학생들이 도서관목록을 ‘최소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도서관목록에 대한 그들의 인식 부족과 이용법에 대한 무지 혹은 왜곡이 주요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어찌 그러한 그릇된 행태가 학생들의 잘못만으로 고착화 되겠는가? 이용자 탓이라고 돌리기에는 우리 목록이 지니는 태생적 한계와 현행 도서관 이용교육이 지니는 한계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현 단계 우리 도서관목록은 자료의 내용과 주제에 대한 접근점과 기술이 빈약하다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대학생들조차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듯이, 현재 도서관목록은 표제에서 표현되지 않는 주제어는 검색되지 않는다. 심지어 목차에 기술된 내용도 보여주기만 할 뿐 검색어로는 제공되지 않는다. 이러한 연유로 열 글자 정도에 해당하는 표제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 자료는 아무리 훌륭하고 다양한 주제어로 검색해도 검색될 리가 만무하다. 다음의 사례는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들이 겪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다.

사실 처음 자기계발서를 읽고 싶어서 '자기계발서'라고 입력했는데, 몇 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서관이라서 이런 책은 별로 없나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서가에 가보니까 굉장히 많은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 생각했어요,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책이 나오지 않는구나라고. (정보컴퓨터공학부, 4학년)

이러한 태생적 한계에 더해, 이용자들의 고착화된 시각을 유지시키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부실한 도서관 이용교육 문제를 들 수 있다. 현재 P대학교서관의 경우 희망자들에게 신청을 받아 이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말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학생들만이 도서관목록의 제대로 된 사용법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이용자들은 목록의 다양한 기능을 실험적으로 이용해보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적극적인 집단이 결코 아니다. 이 연구가 대출량이 평균 이상에 속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음을 감안한다면, 더불어 그들 중에서조차 제대로 된 목록이용교육을 받아본 학생이 극히 드물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도서관 운영주체들이 목록의 품질 강화에 더해 이용자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서둘러야 하는지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여기에 그렇게 뭔가 복잡한 것이 있을 것 같지 않아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은 한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받고 싶다는 시간에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체로 받아야 하고, 또 수업시간에 곁질 수도 있고 해서.. 그렇게 시간을 일부러 내서 들을 만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어영문학과, 3학년)

이 학생처럼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용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학생들이 스스로 도서관 이용교육장으로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현재의 전략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노력에 더해 대학도서관의 이용자들이 목록을 이용하면서 겪게 되는 문제와 원인을 보다 근본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어떻게 전개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학생들의 목록이용행태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그들이 목록을 검색하면서 겪게 되는 생각의 전개과정을 통해 단순하게 정리해 보았다. 그들이 갖는 가장 간단한 의문은 ‘검색어를 어떻게 입력할 것인가?’ 와 ‘검색결과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로 대표된다. 조사에 응했던 대학생들은 전자보다는 후자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즉 검색어 입력은 보편성이 높은 검색어를 입력하면 어떤 결과라도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 고르면 된다고 판단하면서 오히려 검색결과 중에서 필요한 자료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그렇다면 그들의 말대로 그들은 자신의 요구에 적합한 검색어를 잘 선정하고 있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다음 시나리오에 주목해 보자.

지난번 과제는 현대 중국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중국의 현대 정치관련 여러 사항들을 체크하고, 특히 군사력과 관련된 부분, 예를 들면 실제로 일어난 무력충돌이나 분쟁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교수님께서 예를 든 것은 한국과의 관계와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고대 역사가 이 두 나라에 미친 영향과 앞으로의 관계, 이를 위한 자세 등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어요.

위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한 학생의 목록 탐색과정을 관찰한 결과, 20번 이상의 검색어 교체(중국의 군사, 중국의 군사력, 중국 군사, 중국의 정치, 중국 공산당, 고대 중국의 전쟁, 고대 중국, 고대 중국사 등)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검색어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키워드들을 추출하여 검색하고 있었으며, 이 때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다양한 동의어 및 유사어를 기억해 내어 검색어로 사용하고 있었다. 즉, 검색어 추출이 쉽다고 답변한 것과는 달리 실제에 있어서는 적절한 검색어를 선정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도서관목록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좀 더 적극적인 학생들은 적절한 검색어 선정을 위해 인터넷사이트에서 연관검색어를 추천 받은 후 다시 목록에 접근하는 번거로운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 물론 도서관목록에서는 ‘유사한 추천컨텐츠’ 라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지만, 이를 이용한 이용자들은 모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검색어 추천 혹은 관련 자료 추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일한 어려움은 ‘검색결과 중에서 적합한 자료의 식별과 선정’ 과정에서도 반복된다. 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는 기존 서지레코드 제공방법에서의 문제이다. 가령,

P대학교서관 목록을 검색하면 한 화면에 10개의 검색결과가 나열된다. 이러한 검색결과와 나열 순서는 이전의 검색경험에서 관련 서지데이터를 클릭한 수를 계산하여 기계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서지데이터를 클릭해 본 횟수와 해당 자료의 주제 적합성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다. 이러한 불일치로 인해 서지레코드의 의미 없는 나열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검색결과 중에서 이용자들은 무엇을 선택하여야 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다음 응답자의 사례는 기존 서지레코드에서 원하는 자료의 선정에 대한 어려움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예를 들어 중국 이렇게 검색을 하면 첫 페이지에 나타나는 자료가 78년도 자료. 이런 것이 제일 먼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중국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어림잡아 해봐도 후순위일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 경우 검색을 안 한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평소에 사람들이 '중국'이라는 단어로 검색한 사람들이 대출을 한 순서라고 할까? 고민해 본 적은 없지만, 검색어에 대한 적합한 결과가 먼저 나올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경제학과, 3학년)

이어서,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기존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데이터 요소, 즉 반드시 추가해야 할 데이터 요소에 대한 문제이다. 물론 지금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요소 역시 수많은 조사와 연구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은 명확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목록의 데이터가 자료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요소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이용자들의 가치평가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주관적인 요소(실제 읽은 이들이 느꼈던 평가, 책으로 인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등)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자.

책에 대한 정보라기보다는 곁팔기 식의 정보라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책을 안 읽어 본 사람이 그걸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목록을 통해서 책을 선택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되는 정보라는 거지요. (사학과, 4학년)

인터넷 서점에서는 검색을 하면 잘 팔리는 책에 대한 정보, 아니면 실제 읽은 이용자들의 만족도라든지, 혹은 서평이 잘 되어 있으니 그 책만 보면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게 되잖아요. 실제 책을 만지기 이전에. 그런데 도서관목록은 객관적 정보만 있잖아요. 우선순위라든지, 무엇을 읽을지에 대한 판단에 유용한 내용이 없으니깐 수많은 자료 중에서 이걸 어떻게 추려내야 하나 혹은 먼저 봐야하나 라는 고민이 드니까 결국 최신판을 보게 되지요. (무역학전공, 4학년)

인터넷 사이트 같은 경우는 처음 화면에서 책 표지와 책 내용이 보여지잖아요. 일부분이라도 그래서 선택을 하면 설명이 나오는데.. 도서관목록은 제목만 나오고 그걸 클릭해야 책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클릭해서 하나하나 보지 않는 이상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똑같은 제목들만 나열되어 있으니까. (화학교육학과, 3학년)

이처럼 도서관목록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취사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은 원하는 자료의 선정이 어렵다는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대학생들로 하여금 도서관목록이 아닌 다른 정보원에서 학습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찾게 만드는 가장 원론적인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 도서관목록은 검색에는 적합하지만 읽을거리에 대한 안내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현상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즉 이용자들은 읽을 수 있는 정보 자체도 중요하지만 읽을 거리에 대한 안내에 목말라 있다. 또한 이러한 안내가 단순히 도서리스트의 제공이 아닌 목록 안에서 표현되는 요소로서 제공되어, 안내 자료와 검색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가령, 대학교에 입학하여 막연하게 교양을 쌓고 싶을 때 읽으면 좋을 책, 자기에게 적합한 적성을 발견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되는 책, 취업을 준비할 때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책 등, 다양한 상황에 따른 사서의 추천도서들을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그 효과는 배가될 수 있다. 이러한 제언은 기존 목록의 한계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많은 이용자들이 희망하는 내용이었다.

카테고리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검색창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이런 책을 읽어라를 제공해 주는데, 그냥 권장도서 목록이 아니라 검색 안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권장도서 목록은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것도 많으니까.. 우리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관련된 추천도서라든지.. (화학교육과, 3학년)

주제분야별 안내도 좋지만, 수준별 안내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대학도서관에는 여러 전공의 책이 있잖아요. 그럼 그 전공책 사이에서도 타 전공자가 읽으면 좋은 책, 혹은 전공심화인 책 등, 책의 숨은 가치에 대한 정보를 준다고 해야 할까. (심리학과, 4학년)

V. 결론에 대신하여

지금까지 살펴본 현 단계 도서관목록을 둘러싼 문제들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특히 목록이 장서의 개발은 물론이고 참고서비스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도서관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만큼 목록의 질과 검색기능을 개선시키고 이용자들의 탐색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다각도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연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은 이용자의 내면을 읽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도입부에서 밝혔듯이 이 연구는 ‘이용자 친화적’ 탐색도구로 도서관목록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이용자 집단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목록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실제 이용자들이 도서관목록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그들의 내면으로 파헤쳐 들어가는 일들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글을 접으면서 거듭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이용자의 요구는 매우 구체적이라는 사실이다. 그들은 말한다. “우리는 도서관목록을 서가에서 원하는 자료를 보다 잘 찾기 위해서 이용해요. 그런데 목록에 담긴 내용은 서가에서 책을 한권 한권씩 일일이 빼봤을 때야 도움이 되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더 필요한 것은 자료의 속(내용)에 대한 정보예요. 그래야 목록이 자료선택에 도움을 주지요.” 여기서 더 큰 문제는 현 단계 목록의 기술내용과 관련한 불멘소리는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학습활동의 유형에 따라 보다 복잡적이고 다양해진다는 데 있다. 가령,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대학생들이 관심을 두고 노력하는 학습활동의 유형이 변화하고 있었는데 다음 <표 2>는 그러한 변화의 사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표 2> 학년의 변화에 따른 학습유형의 변화

	2학년	3학년	4학년
수업관련 학습활동	단편적인 과제작성 → 포괄적인 수업내용 숙지		
교양관련 학습활동	막연한 교양서적(소설, 자기계발서) → 취업, 면접을 위한 교양서적(인문, 사회영역)		
취업관련 학습활동	외국어 회화 능력	영어점수 관련 시험 준비 ↓ 자격증 준비	취업활동 ↗ ↘ 수업내용 숙지

이러한 학습유형의 변화에 따라 대학생들의 정보요구의 변화는 당연히 수반되며 도서관 자료와 도서관목록에 대한 그들의 요구도 따라서 변화해 가는 것이다. 이처럼 도서관과 도서관목록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는 정체되어 있지 않으며 늘 변화하고 있음을 대학도서관 운영주체들은 명심하여야 한다. 아무리 외형이 첨단화된다고 하더라도 요구에 적합하지 않고 변화하는 요구에 무심하다면 곧 ‘외면’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훈을 기억하면서 이 연구에 이은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이용자요구에 근거한 도서관목록을 실질적으로 구현해보고자 한다. 물론 이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제시한 학습유형, 나아가 인적 변인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미래 목록의 모형을 제시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구중역. “차세대 OPAC의 인터페이스와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8권, 제2호 (2007. 12), pp.61-86.
 광명희.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5권, 제1호 (2004. 3), pp.257-281.

- 권나현. 온라인목록 이용의 행태 및 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 1992.
- 노지현. 도서관목록의 이상과 우리의 현실. 파주 : 한울, 2009.
- 박일중. “국내외 대학도서관에서 사용되는 도서관전산화시스템의 이용자 평가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1호(2003. 3), pp.423-446.
- 사공복희. “웹기반 온라인목록의 이용행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0권, 제3호(2003. 9), pp.81-110.
- 유양근. “대학도서관의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6권, 제3호(2005. 9), pp.189-211.
- 유재욱. “온라인목록 이용자의 주제탐색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2권, 제4호(1998. 12), pp.209-225.
- 윤정욱. “맥락에 따르는 정보추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5권, 제2호(2004. 6), pp.199-218.
- 이은주, 이제환. “대학생의 학습활동에 있어 도서관의 의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2권, 제3호(2011. 9), pp.105-126.
- Bates, Marcia J. “Subject access in online catalogs: A design model.”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Vol.37, No.6(1986), pp.357-376.
- Calhoun, Karen. et al. *Online catalogs: what users and libraries want*. Dublin, Ohio : OCLC, 2009.
<www.oclc.org/reports/onlinecatalogs/fullreport.pdf> [cited 2012. 8. 20].
- Case, Donald O. *Looking for information*. 2nd ed. Burlington, MA : Academic Press, 2006.
- IFLA Task Force on Guidelines for OPAC Displays. *Guidelines for Online Public Access Catalogs(OPAC) Displays: Draft*, 2003.
<<http://www.ifla.org/VII/s13/guide/opacguide03.pdf>> [cited 2012. 8. 22].
- Svenonius, Elaine. *The intellectual foundation of information organization*. Cambridge, Mass. : MIT Press, 2000.

